

고령화 정책 브리프 26번: 디지털 시대의 나이듦

Policy brief: Ageing in the Digital Era
(UNECE Policy Brief on Ageing No. 26, July 2021)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요약

도전 상황

21 세기는 급격하게 확장되는 디지털화(digitalisation)로 특징지어진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조성하고, 고령 인구에 대한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인구 전체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조명하였다. 노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고, 늘어나는 온라인 제품과 서비스에의 접근 장벽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디지털 소외(digital exclusion)는 사회·경제적 참여 등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active and healthy ageing)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우리의 과제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향상함으로써 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연령 친화적이고(age-friendly) 적합한 설계와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하며, 고령 인구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연령주의에서 자유로우며 윤리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안 전략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인 포용과 노인 역량 강화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 접근, 가격 및 사용자의 측면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은행(e-banking), 전자상거래(e-commerce), 이러닝(e-learning) 및 원격 건강 서비스(tele-health services) 등 온라인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참여형 설계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노인의 디지털 세계 참여 촉진을 위한 세대 간 및 동년배 학습 기회와 연령주의 문제 해결 조치 등 노인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안심하며 탐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여 디지털 기량의 격차를 줄인다.**
-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고령에 독립생활 기회를 조성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등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 및 노인의 웰빙과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정보에 입각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 동의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서비스를 조성하여 **디지털 시대에 노인 인권을 보호한다.**

예상 결과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감소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인 포용 개선
- 관련 위험의 완화와 함께 디지털화의 장점에서 오는 혜택의 기회 확대

모범 사례 출처 국가: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과 북아일랜드, 미국.

서론(Introduction)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 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는 기술을 일상생활의 핵심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일상과 생활 환경에 지속해서 적용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놀라운 업적이며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기술 발전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들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은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 감소와 사회 참여 증가, 신체 활동 촉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지원, 건강 및 장기 영양 개선 등에 효과적인 도구로 밝혀졌다.¹ 디지털화의 증진은 모든 연령과 사회의 구성원에게 도전도 제기한다. 디지털 변환과 자동화의 빠른 속도는 인구 전체와 그 내부에 존재하는

¹ See for instance Abdi et al, 2018; Baker et al, 2018; Van der Berg et al, 2007; Buyl et al, 2020.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배제, 권력의 불균형, 개인의 사생활과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그 사용과 혜택에 있어 인구 집단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한다.²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적응에서의 불균형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가들이 표하는 주요 우려 사항이며, 이것은 개인 및 사회 수준에서 고령화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

상자 1

디지털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ies)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하드웨어 및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smartphones), 태블릿(tablets), 로봇틱스(robotics)와 같은 장치 또는 인터넷(Internet), 의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healthcare applications), 이-뱅킹(e-banking),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 또는 온라인 게임(online gaming)과 같은 서비스와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생산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설명하며, 인지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량(digital skill)에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전자정부,

² 디지털 격차는 1995년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Falling through the Net" 이후 주류 개념이 되었고, 이 보고서는 떠오르는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그 이용에 대한 미국인 사이의 불평등한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The digital divide became a mainstream concept after the 199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report, "Falling through the Net", which raised awareness of unequal opportunities in adoption and access to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st the American population).

전자은행 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생성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³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인, 가구, 기업 및 지역 간의 격차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한다."⁴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저렴하며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량과 능력을 갖추으로써 모두가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ies)은 인지 및 신체장애가 있는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령, 성별,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러한 장점과 긍정적인 기술 진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의 이질성과 다양한 요구 및 관심을 인정하면서도 고령 인구가 디지털 세계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디지털 기술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해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정책 브리프는 정책 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및 시민 사회 활동가가 디지털 격차에 대처하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디지털

³ See Eurostat definition of digital skills indicators available at(유럽연합 통계청의 디지털 기량의 지표에 관한 정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ec.europa.eu/eurostat/cache/metadata/en/tepsr_sp410_esmsip2.htm.

⁴ OECD 2001,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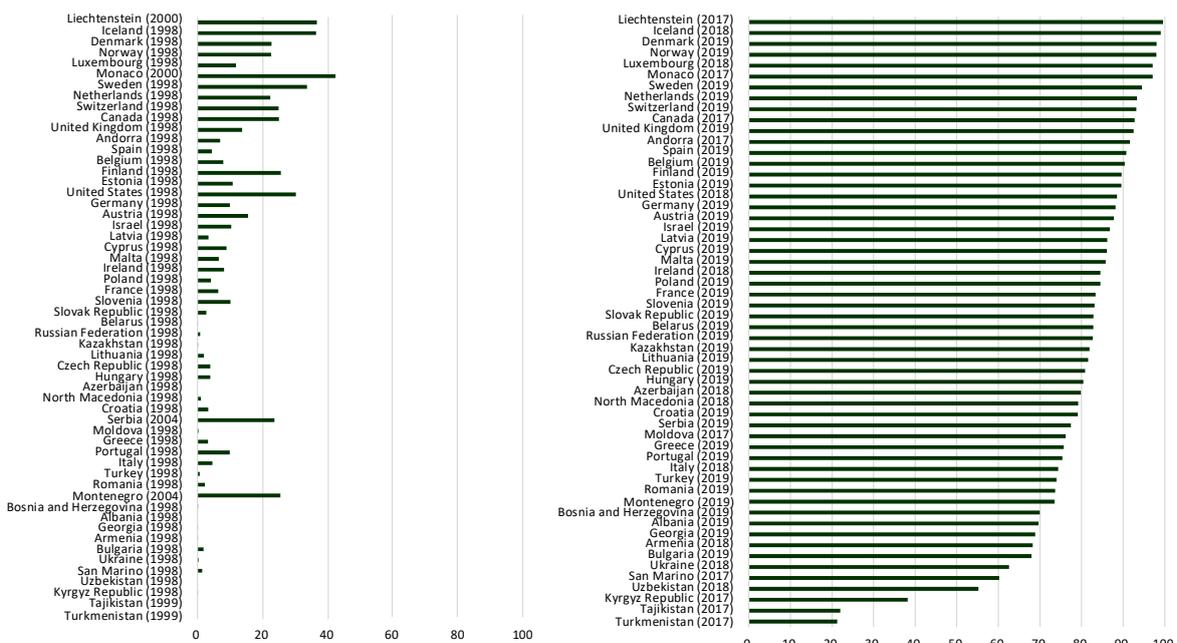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인터넷 사용에서의 불평등: 디지털 격차(Inequalities in Internet use: digital divides)

지난 20년 동안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 전체에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소수의 사람만이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2017~2019년까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 인구의 대다수는 적어도 가끔 인터넷에 접속했다. 아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사용에는 지역적 다양성이 현저히 존재한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디지털로 연결됐지만 서부 발칸,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현저히 낮는데, 2017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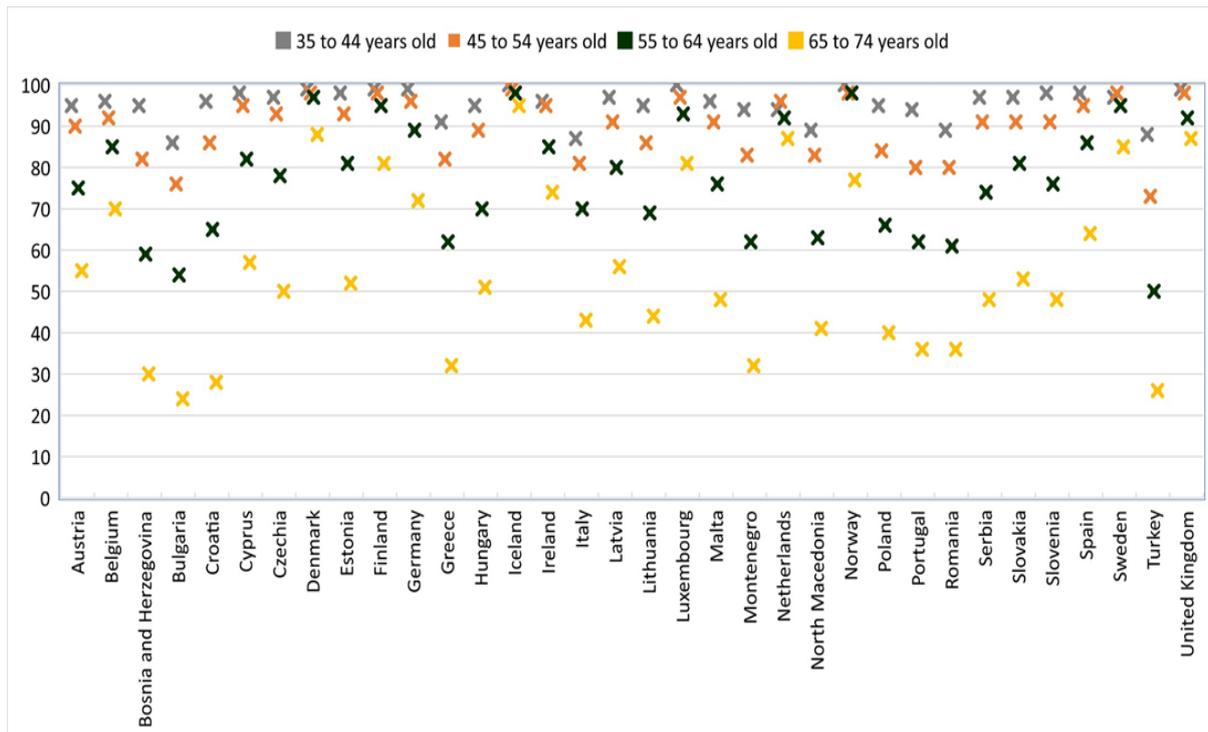
1990년 후반과 2010년 후반 동안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 전체의 인터넷 사용자 (지난 3개월간 인터넷 사용 인구의 %)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1)

관련 문헌에서는 1980년 이후 태어나 디지털 시대에 자라고 교육을 받은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과 성인 기간 디지털 전환을 경험한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가 구별되어 왔다.⁵ 연령그룹별 인터넷 사용을 비교한 결과 노인 그룹이 인터넷에 덜 접속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유럽 연합(EU)의 2019년 기본권 설문조사(2019 Fundamental Rights Survey) 결과에 따르면⁶ 16~29세 응답자의 98%에 비해 75세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자 5명 중 1명만이 적어도 가끔 인터넷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사용 빈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림 2
2020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지역 일부 국가의 연령별 주당 인터넷 사용
 (각 연령 그룹별 %)



Source: Eurostat, ISOC_CI_IFP_FU (2021)

⁵ Prensky, 2001.

⁶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20.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07년 유럽 연합의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 중 83%가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는 반면 2020년까지는 32%만이 그러했다.⁷ 2019년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페이스북)이 고령층 사이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 21%가 페이스북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2019년에는 37%가 그러했다.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1946~1964년 출생) 중 페이스북 사용은 2019년 조사 응답자 중 60%였으며, 이는 2012년 43%에서 증가한 수치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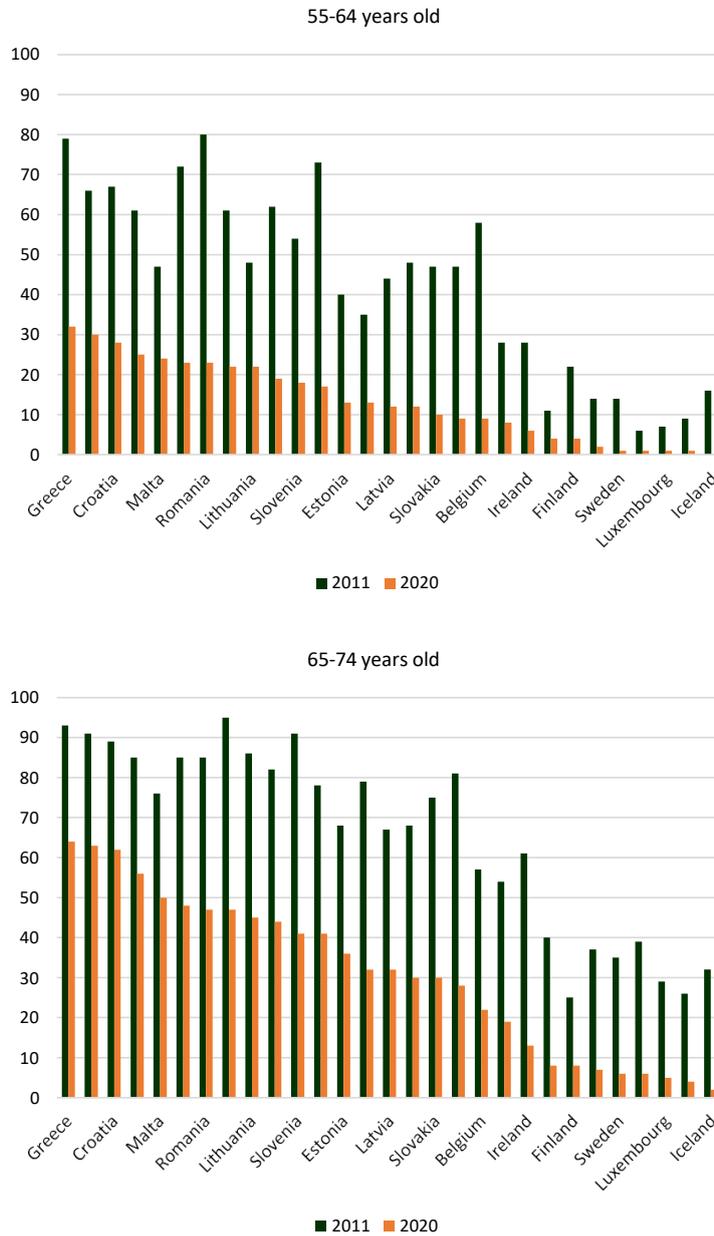
하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용 확대 경향은 국가 간 및 하위 지역 간의 상당한 차이를 막지는 못한다. 2020년까지 노르웨이(65~74세)의 노인 중 4%만이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북마케도니아의 46%와 터키의 71%와 대조된다. 55~74세 인구 중 인터넷 사용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북유럽(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남유럽과 동유럽 일부 지역과 서부 발칸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노인 인구의 절반 미만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⁷ Eurostat 2021.

⁸ Vogels, 2019.

그림 3

2011년과 2021년, 일부 국가에서의 인터넷 비사용치
(55세~64세 및 65세~74세 인구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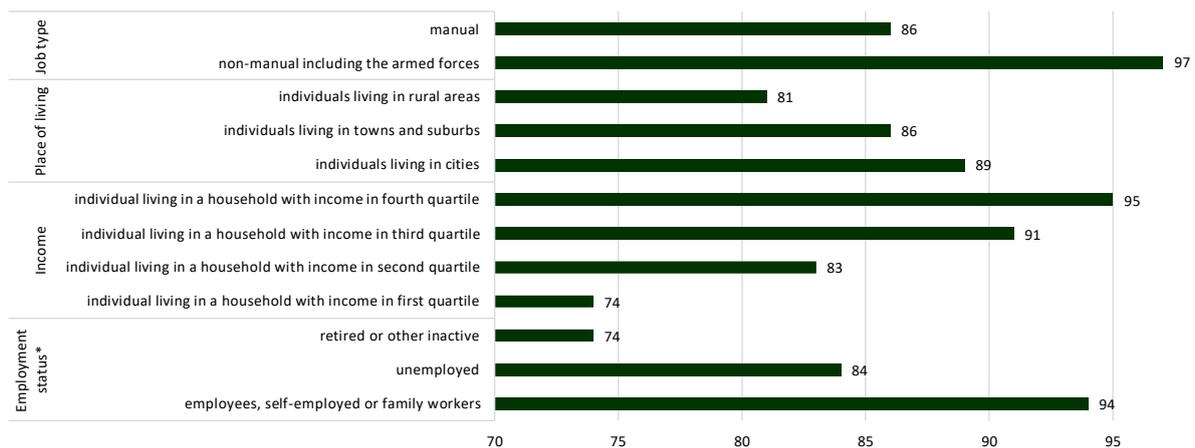
Source: Eurostat, ISOC_CI_IFP_FU (2021)

그러나 연령이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 성취도, 직업 및 지리적 위치 등의 누적 요인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⁹ 그림 4는 노동 연령 인구(25세~64세) 중 사무직 노동자, 도시 거주자, 고소득 집단 및 노동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2020년 유럽연합-27에서 직장 여부, 직업 종류, 소득수준 및 주거지역에 따른 인터넷 사용 빈도

(상기 그룹의 '매일 사용' 등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



Source: Eurostat, ISOC_CI_IFP_FU (2021)

Note: data refers to individuals aged 25-64(주: 25세~64세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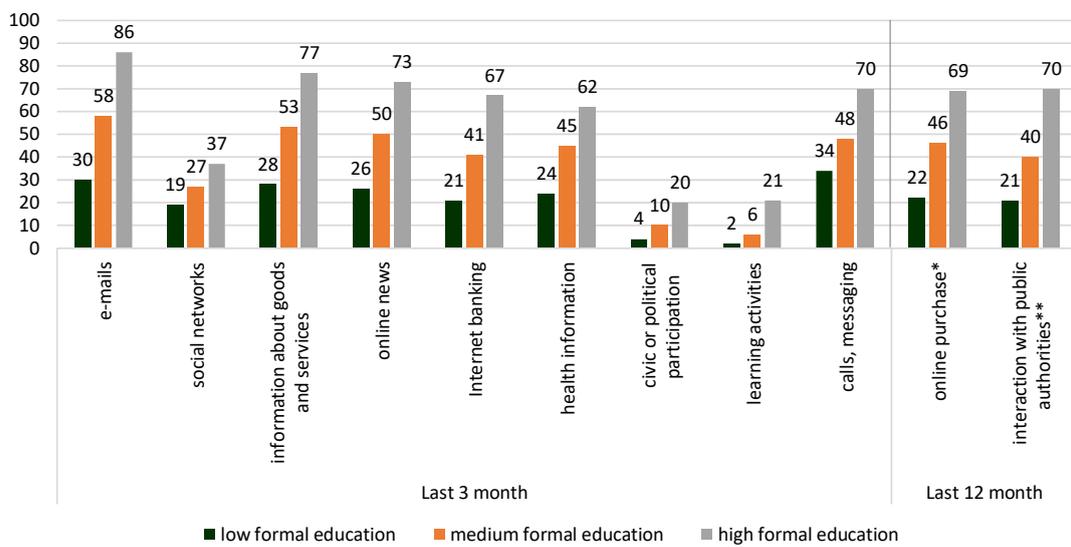
고등교육을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활발한 인터넷 사용자이며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한다(그림 5). 교육은 성별보다 인터넷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은 전화, 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⁹ Fang et al, 2019.

사용했다(그림 6).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노년층과 디지털 포용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더 뚜렷하다(그림 7).

그림 5

2019년 유럽연합-27에서 55세~74세의 사람 중 교육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상기 그룹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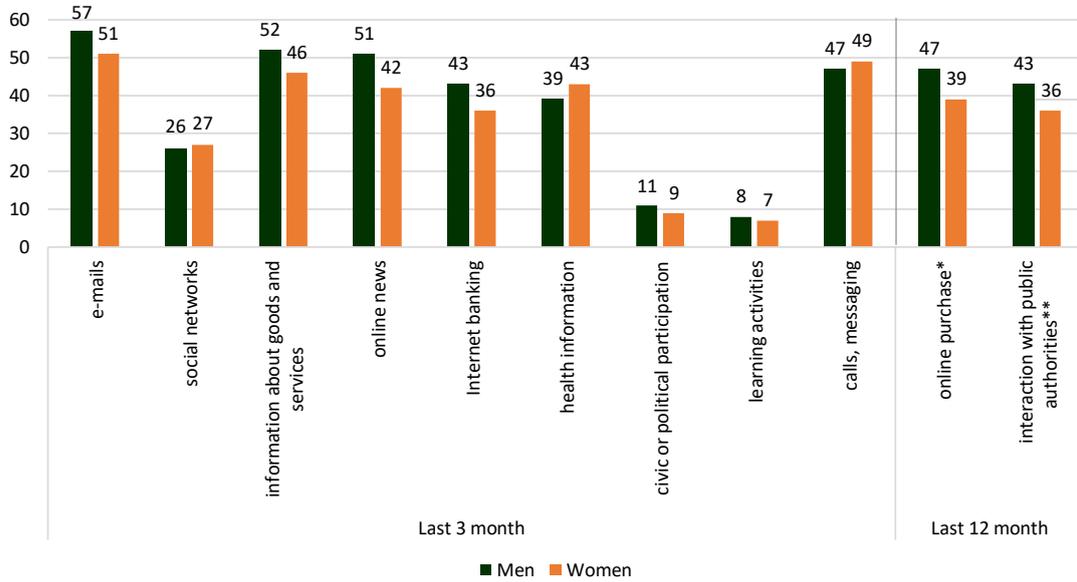
Source: Eurostat, isoc_ci_ac_i , isoc_ciegi_ac, isoc_ec_ib (2021).

* ‘online purchase’ data are from 2020(‘온라인 구매’는 2020년 데이터).

**interaction with public authorities involve any one the three actions: obtaining information from public authorities’ web sites, downloading official forms, submitting completed forms(공공기관과의 접촉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의 정보 획득,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및 완성된 양식 제출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6

2019년 유럽연합-27에서 55세~74세의 사람 중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동
(상기 그룹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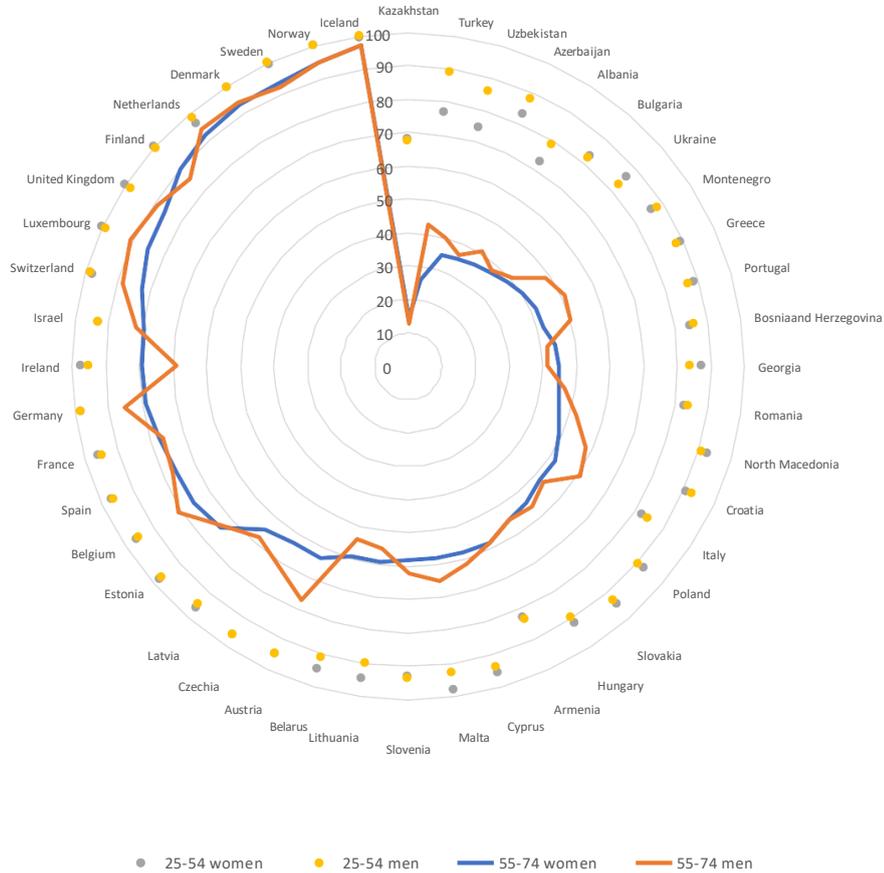
Source: Eurostat, isoc_ci_ac_i , isoc_ciegi_ac, isoc_ec_ib (2021).

* ‘online purchase’ data are from 2020(‘온라인 구매’는 2020년 데이터).

**interaction with public authorities involve any one the three actions: obtaining information from public authorities’ web sites, downloading official(공공 기관과의 접촉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의 정보 획득,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및 완성된 양식 제출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7

2019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가 일부에서 3개월에 걸친 인터넷 사용
(상기 그룹의 %)



Source: UNECE Statistical Database (2021)

Note: data on Belarus refers to last 12 month(주: 벨라루스의 데이터는 지난 12개월을 의미)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서론'과 '인터넷 사용에서의 불평등: 디지털 격차'를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ece.org/sites/default/files/2021-07/PB26-ECE-WG.1-38_0.pdf).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